

미래의 경영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기술-
Business Solution for the Future



글 | 成平健
(Sung, Pyung Kun)

항공기술사, 제이스템(주) 회장.
E-mail : reminda9@hanmail.net

기술, 과학, 문화와 인간의 의식면에서 미래의 트렌드를 읽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미래를 20~30년 후라고 보고 미래경영의 모델을 위한 필자의 견해를 설명하려고 한다.

필자는 미래경영의 두 축으로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파동기술의 보급을 제시한다. 첫째는 새로운 철학 : M-M-C-C(money-mind-company-cosmos)의 이해와 실천이다. 필자는 본 철학을 창안하여 책으로 출판한 바 있다.(21세기 회사창조의 법칙 : M-M-C-C, 마오라스출판사)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상대방이 즐거워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즉 돈(money)은 남을 즐겁게 한 마음(mind)에 따라 흐른다. 회사(company)는 우주(cosmos)의 창조적 원리를 적용할 때만이 발전, 성장한다. 우주의 창조적 원리를 인간적으로 풀이하면 회사가 하는 일이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필요하면 그 회사는 성장, 발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쇠퇴하여 없어진다. 이상이 M-M-C-C의 개요이다.

이 철학을 기업의 발전에 연계시켜 보면 회사는 내부, 외부의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돈이 들어오고 회사가 성장, 발전한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즐겁게 일하는 것이 최고라는 뜻에서 편(Fun) 경영이 회자되고 있다. 편 경영이 제대로 되려면 사장이든 사원이든 돈(Money)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도 즐겁고, 돈이 없어도 즐거워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현시점에서 진정한 편 경영은 말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어렵다. M-M-C-C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때 편 경영이 가능하여 미래경영의 초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의 회사는 새로운 파동기술을 상품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품에 자연의 파동

을 공명시키는 파동기술을 보편화시키는 일이다. 해당상품의 기능에 파동의 작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자연의 파동을 산업이나 생활에 접목하는 기술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과학이다. 왜 미래경영에 파동기술을 접목해야 하는가? 현대기술과 과학의 단계적 개선만으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인간이 물질적인 면에서 한 없이 성장하고자 하면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이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파동기술을 컴퓨터나 TV 등에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이들 전자제품은 유해전자파 발산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전자제품이 파동화되면 유해전자파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즐겁고 건강에 좋은 파동이 발산하게 된다. 또한 파동기술은 공장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육체적 건강을 증대시키는 식재(食材)를 생산하는 농업을 개선하는데도 파동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제이스텝(주)은 파동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다. 파동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이 어렵다 하여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안 된다. 파동의 세계는 무한한 가치가 잠재해 있는 미래경영의 보물창고이다. 현대과학은 기계로 측정하여 결과가 나와야 인간이 신뢰하는 기계중심의 과학(=객관적 과학)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간이 체험하여 느끼면서 인정하는 인간중심의 과학(=주관적 과학)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과학은 기계중심의 과학과 인간중심의 과학이 균형 잡히는 곳에 성립

될 것이다.

이렇게 파동화 기술이 응용된 산업이나 상품은 인간의 생명력을 활성화시켜 편안함과 즐거움을 높여 준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힐링 비즈니스(healing business)이다. 여기서 힐링은 치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며 창조적으로 생활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힐링 비즈니스가 지금 막 태동하고 있으며 20여년 후에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이러한 힐링기능이 접목될 것이며 비즈니스의 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과학적 혁명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혁명시켜 나갈 것이다.

기업의 목적이 가치창출을 통한 이윤창출에 있지만 이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미래기업의 목적은 인간을 즐겁게 하는 힐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힐링을 실천할 때 진정한 인간중심의 경영이 될 것이다. 필자는 삼성종합화학 등의 최고경영자 경험과 15년여의 연구로 축적된 파동기술로 미래경영에 도움을 주는 Natural Think Consulting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는 창조적인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믿고 있다. 21세기 미래의 기업이 되는 두 가지 조건 즉 M-M-C-C라는 새로운 철학과 파동과학의 활용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기를 기원한다.

(원고 접수일 2008년 9월 16일)